

LS전선(주) 인동사업장 환경안전경영의 실천주의자



글 | 이미숙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팀 대리



환경안전팀 이진탁 사원.



방재실 내부.



소방훈련.



소방훈련.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 LS전선

LS전선(주)는 1962년 한국케이블공업(주)로 설립된 이래 1966년 4월 안양 공장을 준공하고 그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송배전의 주력선인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국내 최고의 전선회사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금성 전선, LG전선을 거쳐 2003년 LG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면서 LS전선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제2의 창업을 선언,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을 경영이념으로 설정하고 'Your No.1 Creative Partner'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100%를 실현하고 있는 LS전선은 정보통신, 전력, 부품 및 소재, 기계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부품·소재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R&D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에는 강남 본사 및 안양 연구소와 5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15개 도시에 해외법인 및 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27만4천여㎡의 대지면적에 5개 공장이 자리잡은 인동사업장은 1996년 12월 구미에 설립된 이래 300여명의 종업원이 통신케이블 및 알루미늄 압출제품·고무호스 등을 생산하여 지난 2006년에는 매출액 1천500억 원을 달성하였다.

환경안전경영의 실천

LS전선은 1997년 안양·군포·구미·인동 공장의 ISO14001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전 사업장에 걸쳐 환경안전경영시스템(ISO14001·OHSAS18001·KOHAS18001)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안전·보건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엄격한 내부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축적된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영향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며, 환경과 인간을 존중하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장감 있는 화재진압훈련 실시

LS전선 인동사업장은 비상사태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인명구조 및 화재신고·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진압훈련 및 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을 진지하고 현장감 있게 실시하여, 실제상황에서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안전팀의 이진탁 사원은 “이 밖에도 LS전선 인동사업장은 2007년 8월부터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팀별 소방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에게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등 안전에 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협력업체 환경안전관리 지원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

LS전선 인동사업장에는 약 200여개의 협력사가 있는데, 인동사업장은 이들 역시 제품을 납품하는 만큼 LS전선 수준의 환경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예방 및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 인허가 준수 여부 및 사고발생 유무·환경측정대행업 등록 확인·납품되는 비상비자재의 품질관리상태 및 경영자의 의지와 경영능력 등을 업체 선정 기준으로 엄격히 활용하여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외주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허가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며,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에 대한 사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신고, 작업 후 확인을 거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 밖에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낙동강 유역의 하천정화활동을 비롯한 환경의 날 기념 이벤트·이계천 수질감시·사업장 주변 쓰레기 및 도로변 오물 수거·재활용 운동 등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탐방을 마치며...

안전관리의 핵심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찾아낸 후, 이를 제거 및 통제하여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른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안전관련 규정과 계획이 아무리 좋고 구성원이 안전 전문지식이나 안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점에서 LS전선 인동사업장은 확실한 환경안전 실천을 통해 안전관리의 정석을 보여주는 사업장이다.

앞으로도 LS전선이 지속적인 환경안전전략을 꾸준히 개발하고 적용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고,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

